



한 국 기 독 교 장 로 회



경 동 교 회

Kyungdong Presbyterian Church

제76년 3호

주현절 두 번째 주일

2021년 1월 17일

예배시간 09:30

빛이 있으라 하시니 | 김필연

04614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 204(장충동 1가)

Tel: 02-2274-0161~3 Fax: 02-2277-0798

<http://www.kdchurch.or.kr>

예 배 순 서 주현절 두 번째 주일

전주 주 예수여 우리와 함께 하소서(G. Böhm) **오르가니스트: 채문경 권사**

모임 (*는 일어서서)

***모임찬송** 65장(내 영혼아 찬양하라) **다함께**

***예배부름** **목 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주현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의 통곡을 기쁨의 춤으로 바꾸어 주시고, 우리에게서 슬픔의 상복을 벗기시고, 기쁨의 나들이옷을 갈아입히신 주님께서(시 30:11) 우리를 부르셨으니, 그 놀라운 주님의 은혜와 한결같은 사랑을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합니다.

회 중: 할렐루야!

***송영** **오르가니스트**

***시편교독** **목 사:** 주님, 주님께서 나를 살살이 살펴보셨으니, 나를 환히 알고 계십니다.
회 중: 내가 앉아 있거나 서 있거나 주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멀리서도 내 생각을 다 알고 계십니다.
목 사: 내가 길을 가거나 누워 있거나, 주님께서는 다 살피고 계시니, 내 모든 행실을 다 알고 계십니다.
회 중: 내가 혀를 놀려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주님께서는 내가 하려는 말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목 사: 주님께서 나의 앞뒤를 두루 감싸 주시고, 내게 주님의 손을 얹어 주셨습니다.
회 중: 이 깨달음이 내게는 너무 놀랍고 너무 높아서, 내가 감히 측량할 수조차 없습니다.
목 사: 내가 주님의 영을 피해서 어디로 가며, 주님의 얼굴을 피해서 어디로 도망치겠습니까?
회 중: 내가 하늘로 올라가더라도 주님께서는 저기에 계시고, 스올에다 자리를 펴더라도 주님은 저기에 계십니다. 아멘(시 139:1-8).

경배찬송 335장(크고 놀라운 평화가) **다함께**

죄의 고백 **목 사:**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주님, 사람들에게 배푸신 주님의 놀라운 구원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죄를 고백하오니(시 107:8),
회 중: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님의 종들과 주님의 백성의 죄를 용서해주시고, 우리가 살아갈 올바른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왕상 8:36).

응답송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경동찬송 11장)** **다함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비하신 주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비하신 주여

침묵의 기도

다함께

용서의 선언

목 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 모든 병을 고쳐 주시는 분,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해 주시는 분, 사랑과 자비로 단장하여 주시는 분, 평생을 좋은 것으로 흡족히 채워 주시는 분, 공의를 세우시며, 억눌린 사람의 권리를 변호하시는 주님께서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여러분의 죄를 멀리 치우셨음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회 중: 아멘.

응답송

당신의 나라 당신의 권세(경동찬송 8장) **다함께**

당신의 나라 당신의 권세 당신의 영광 영원토록

당신에게 있나이다 당신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 영원토록 아멘

말씀

구약의 말씀

사무엘기상 3:1-10 **박연길 목사**

어린 사무엘이 엘리 곁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을 때이다. 그 때에는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일이 드물었고, 환상도 자주 나타나지 않았다. 어느 날 밤, 엘리가 잠자리에 누워 있을 때였다. 그는 이미 눈이 어두워져서 잘 볼 수가 없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가 있는 주님의 성전에서 잠자리에 누워 있었다. 이른 새벽,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환하게 밝혀져 있을 때에, 주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부르셨다. 그는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고서, 곧 엘리에게 달려가서 “부르셨습니까? 제가 여기 왔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엘리는 “나는 너를 부르지 않았다. 도로 가서 누워라” 하고 말하였다. 사무엘이 다시 가서 누웠다. 주님께서 다시 “사무엘아!” 하고 부르셨다.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 가서 “부르셨습니까? 제가 여기 왔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엘리는 “애야, 나는 너를 부르지 않았다. 도로 가서 누워라” 하고 말하였다. 이 때까지 사무엘은 주님을 알지 못하였고, 주님의 말씀이 그에게 나타난 적도 없었다. 주님께서 사무엘을 세 번째 부르셨다.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 가서 “부르셨습니까? 제가 여기 왔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제야 엘리는, 주님께서 그 소년을 부르신다는 것을 깨닫고, 사무엘에게 일러주었다. “가서 누워 있거라. 누가 너를 부르거든 ‘주님, 말씀하십시오. 주님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여라.” 사무엘이 자리로 돌아가서 누웠다. 그런 뒤에 주님께서 다시 찾아와 곁에서 서서, 조금 전처럼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부르셨다. 사무엘은 “말씀하십시오. 주님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응답송

주여 우리 맘 여사(경동찬송 31장) **다함께**

주여 우리 맘 여사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서신의 말씀

고린도전서 6:12-20 **박선교 목사**

“모든 것이 나에게 허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

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나에게 허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아무것에도 제재를 받지 않겠습니다. “음식은 배를 위한 것이고, 배는 음식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도 저것도 다 없애 버리실 것입니다. 몸은 음행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있는 것이며, 주님은 몸을 위하여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을 살리셨으니, 그의 권능으로 우리도 살리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떼어다가 창녀의 지체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창녀와 합하는 사람은 그와 한 몸이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두 사람이 한 몸이 될 것이다”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합하는 사람은 그와 한 영이 됩니다. 음행을 피하십시오. 사람이 짓는 다른 모든 죄는 자기 몸 밖에 있는 것이지만, 음행을 하는 자는 자기 몸에다가 죄를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성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성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들인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응답송 주여 우리 맘 여사(경동찬송 31장) 다함께
주여 우리 맘 여사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복음의 말씀

요한복음서 1:43-51 목사

다음 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떠나려고 하셨다. 그 때에 빌립을 만나서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빌립은 벳새다 출신으로,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고향 사람이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만나서 말하였다. “모세가 율법책에 기록하였고, 또 예언자들이 기록한 그분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그분은 나사렛 출신으로, 요셉의 아들 예수입니다.” 나다나엘이 그에게 말하였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소?” 빌립이 그에게 말하였다. “와서 보시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두고 말씀하셨다. “보아라, 저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에게는 거짓이 없다.” 나다나엘이 예수께 물었다.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나다나엘이 말하였다. “선생님, 선생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에 내가 너를 보았다고 해서 믿느냐? 이것보다 더 큰 일을 네가 볼 것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또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응답송

주여 우리 맘 여사(경동찬송 31장) 다함께
주여 우리 맘 여사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친교와 소식	목사
기도	장용준 장로
응답송	오르가니스트
특송	주님을 찬양하라(G. F. Händel) 송승연 집사
설교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채수일 목사
기도	설교자

보냄

봉헌과 찬송	216장(성자의 귀한 몸)	다함께
*봉헌기도		목사
*보냄찬송	635장(하늘에 계신)	다함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축도		목사
*송영		오르가니스트
후주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Salis J. Vail)	오르가니스트

『경동찬송』은 찬송가 뒤편에 있습니다.

알리는 말씀

1. 교우소식

- ▶장례: 故 최기남 집사(향년 90세/최지영 집사 부친 · 이병양 집사 장인, 최지운 집사 부친 · 이수진 집사 시부, 1월 4일(월) 소천, 1월 6일(수) 발인, 김포 설낙원 장례식장)

2. 신임 권사 및 신임 집사 교육

- ▶신임 권사 교육: 오늘(1월 17일) 오전 11시 30분 Zoom
▶신임 집사 교육: 다음 주일(1월 24일) 오전 11시 30분 Zoom

3. 2021년도 교회장학생 선발

- ▶대상: 교회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대학생
▶제출서류: 신청서, 재학증명서, 부서장 추천서
▶신청: 2월 7일(주일)까지 사무실(*신청서 사무실 비치)
▶주관: 장학위원회(위원장: 강승구 집사)

4. 2020년도 교회 주보 제본 신청

- ▶일시: 1월 31일(주일)까지 교회 사무실 제출

5. 2021년도 교회 달력

2021년도 교회 달력을 배부합니다(문의: 사무실).

6. 다음 주일(1월 24일) 예배 기도

▶기도: 조규곤 장로

특별봉헌 1월 3일

감사헌금

계세협·유도희(감사), 김기은(감사), 김동준(한 해 감사), 김성식·김원희(새해 감사), 김수평·임문규(범사), 김영결(2020년, 2021년 감사), 김재호(감사), 김정근·김원숙(감사), 김정애(감사), 김지옥(십일조), 박상민·김혜리(감사), 박영수(감사), 박재윤·한경애(새해 감사), 박재준·박소영(감사), 박해울(감사), 서은숙(감사), 손창돈(감사), 송영옥(감사), 신명호(범사 감사), 신정혜(송구영신 감사), 우관호·이가영(아들취업), 이강송·채해림(십일조), 이석한·변윤신(감사), 이재욱·주숙현(새해 감사), 이재인·편순남(신년 감사), 임승우(십일조), 채수일·김정숙(범사 감사), 최봉덕(감사), 무기명(감사)

‘예배’ 영상 안내

경동교회 홈페이지: www.kdchurch.or.kr 유튜브 검색: 경동교회

헌금(주정, 십일조, 감사, ‘코로나19’긴급구호헌금, 목적헌금) 안내

계좌: 우리은행 1005-403-855152 한국기독교장로회경동교회

*헌금을 입금하실 때 ‘이름’과 함께 ‘헌금내용’을 꼭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정, ○○○십일조, ○○○감사, ○○○구호, ○○○목적

예배 안내

부 서	성 경 말 씀	설 교 제 목	설 교 자
유치부	에스겔서 37:23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최고권 전도사
어린이부	에스겔서 37:20-23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	박재준 전도사
중·고등부	에스겔서 37:15-23	너는 내 백성 나는 너희의 하나님	김민정 목사
경청(청년)	에스겔서 37:15-23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됨	박선교 목사

다음 주일 말씀

1월 24일(주현절 세 번째 주일)

성 경: 구 약(요나서 3, 15, 10)
서신서(고린도전서 7:29-31)
복음서(마가복음서 1:14-20)

설 교: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채수일 목사